

2. 인문사회계열 B유형(경영학과, 국제학부,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회계학과) 논술전형 문제

[문항 1] (가)의 ‘법치’와 ‘덕치’의 관점에서 (나)에 등장하는 ‘다모’와 ‘상급관리’가 보여준 행위를 분석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300~350자 / 20점)

(가) 공자가 말씀하셨다.

“법령으로써 백성을 인도하고, 형벌로써 질서를 바로잡으면, 백성들이 형벌은 면할 수 있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갖지는 않을 것이다. 덕으로써 백성을 인도하고, 예로써 질서를 바로잡으면, 백성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가져 바르게 될 것이다.”

(나) 순조 임금 1832년에 큰 가뭄이 들자 백성에게 술 빚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몰래 술 빚는 자를 고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주었다. 어느 날 한 양반 집에서 술을 빚는 것 같아 관리가 김씨 성의 다모(茶母: 차 시중을 담당하는 관청 노비. 형사의 역할도 하였음)에게 수색하도록 하였다. 수색하던 다모가 술을 발견하고 새파랗게 떨고 있는 주인 할멈을 꾸짖었더니 할멈이 겨우 대답하였다.

“우리 집 영감이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좋아하던 술을 마시지 못하자 음식물조차 삼키지 못해 지병이 악화되었네. 그래서 곡식 몇 되를 구걸해 영감의 병 조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몰래 술을 빚게 되었네. 부디 보살님 같은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 주게.”

처지를 딱하게 여겨 다모는 술을 버리고 돌아와 관리에게 술이 없었다고 고하였다. 이를 알게 된 상급관리는 범인을 숨겨준 죄로 다모에게 스무 대의 태형을 명하였다.

태형이 끝나자 상급관리는 다모를 조용히 불러 돈 열 께미를 주며 말하였다.

“자네가 범인을 숨겨 주었는데 그 죄를 용서한다면 나라의 법이 확립되지 않으니 매질을 하도록 하였네. 하지만 자네는 의로운 사람일세. 그 행동이 훌륭하여 돈 열 께미를 상으로 주는 것이니 받게나.”

그 돈을 받은 다모는 할멈 집으로 가 돈 열 께미를 주면서 말했다.

“내가 관청에 소속되었으니 범인을 숨겨준 것에 대해 매질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할멈이 아니었다면 상금을 어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 돈으로 땀감과 쌀을 사서 겨울을 나세요. 그리고 다시는 몰래 술을 빚지 마세요.”

가. [문항 1] 출제의도, 문항해설 및 평가기준

출제의도

- 가) 제시된 이론에 따라 관련 현상을 추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나) 이론을 현상에 적용하고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다) 적절한 개념과 논리를 바탕으로 조리 있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표현력을 평가한다.

문항해설

- (가)는 유가의 입장에서 법치와 덕치의 차이를 말하면서 덕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나)는 인정(인간적 정)으로 인한 위법에 대한 다모와 상급관리의 전후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평가기준

[기본사항]

- 가) 8등급으로 평가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 나)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평가
- 다)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평가
- 라)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평가
- 마)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평가
 -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내용]

◎ 채점 방향

- (1) (가)에 서술된 법치와 덕치의 차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 (2) 법치와 덕치의 관점에 따라, (나)에서 다모의 전후 행위, 상급관리의 전후 행위의 의미를 잘 구분하고 있는가
- (3) 할멈의 위법에 대한 다모의 처리행위(덕치), 이에 대한 상급관리의 처벌(법치), 처벌 후 상급관리가 상을 주는 행위(덕치), 할멈에게 법 준수를 강조하는 다모의 행위(법치)를 잘 분석하는가

◎ 채점 포인트

- (1) 4개 행위 중 파악하지 못한 행위 수만큼 1~2 등급씩 감점: 예) 3개 행위를 찾을 경우 1~2 등급 감점
- (2) 파악한 행위에 대해 법치, 덕치의 의미를 분석하지 못한 수만큼 1~2등급씩 감점:
예) 3개 행위를 찾고 1개 분석이 틀린 경우 2~4 등급 감점
- (3) 기타 : 매질을 받는 것을 당연시 하는 다모(법치), 할멈에게 상금을 주는 다모(덕치) 등을 서술한 경우, 그 설명력에 따라 1등급 가점 가능

[형식]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2) 분량

- ① 350자 초과 : 1~2등급 감점
- ② 250자~3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③ 200자~25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④ 200자 미만 : F

나. [문항 1] 예시답안

(나)에서는 금주령을 위반한 할멈에 대한 다모의 행위, 그리고 이에 대한 상급관리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가)의 법치, 덕치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는 네 가지 행위가 발견된다. 첫째, 할멈의 위법을 인지하고도 그것이 아픈 영감을 위한 일이였다는 점에서 눈을 감아준 다모의 행위는 덕치이다. 둘째, 다모가 할멈의 위법행위를 덮어준 사실을 알고 벌을 내린 상급관리의 행위는 국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법치이다. 셋째, 상급관리가 벌을 받은 다모를 의롭게 여겨 상을 준 것은 덕치이다. 넷째, 상으로 받은 돈을 할멈에게 주며 술을 빚지 말라고 한 다모의 행위는 법의 준수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법치이다. (338자)

[문항 2]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문제점을 설명하고, 그 해결방향을 제시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우리 앞의 세대들은 우리에게 고도로 발달한 과학과 기술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 안에는 또한 인간의 존립을 위협하는 엄청난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문명화된 인류의 운명은 인류 스스로가 세우는 도덕적 힘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필요로 하는 식량과 소비재는 옛날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생산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생산과 노동, 분배의 문제는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 힘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내버려두면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는 이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만일 모두가 이기적 동기에 매달리고 또 이런 행위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아 경제생활에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국제관계의 지침으로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것입니다. 현재 전쟁 수행 방법들이 너무나 많이 발달한 상태입니다. 만일 전쟁을 예방할 방법을 조만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생명 자체가 살아남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A. 아인슈타인)

(나) 대부분의 과학 기술은 그 영향의 범위가 국지적이지 않고 매우 포괄적이다. 이는 한 사회의 대다수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원하지 않는 간에 특정 과학 기술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하는 특정 과학 기술 연구 개발 프로그램은 그 재원을 시민들의 세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발 사업은 한정된 특정 집단의 협소한 이익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이익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 기술 개발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다) 최근에 로봇이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마존은 전 세계 26개 배송센터에 물류 로봇을 10만 대 이상 채용했다. 사람이 하면 1시간씩 걸렸던 일들을 단 15분 만에 해치운다. 아디다스도 로봇 공장 ‘스피드 팩토리’를 2017년 독일에 만들었다. 600명의 인간 노동자가 하던 일을 로봇이 이어받아 연간 50만 켈레의 운동화를 생산하고 있다. 이 공장에 인간은 10명뿐이다. 사실 ‘로봇’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도 이런 노동력 대체에 대한 인간의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로봇은 이제 인간 일자리 대체를 넘어 생명까지 위협한다. 각국에서는 무인 전투기, 무인 함정, 무인 탱크 등 자율살상 기능을 갖춘 드론 무기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영국의 스텔스 무인기 ‘타라니스 드론’은 마하 1의 속도로 적진에 침투해 2개의 미사일을 투하하는 시험비행을 이미 2015년에 성공적으로 끝냈다. 미 해군의 무인 함정 ‘씨 헌터’는 승무원 없이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할 수도 있다.

가. [문항 2] 출제의도, 문항해설 및 평가기준

출제의도

- 가) 제시된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사회 현상에 적용시켜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나) 글들에 제시된 관점을 종합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다) 적절한 개념과 논리를 바탕으로 조리 있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표현력을 평가한다.

문항해설

- (가)는 규제되지 않는 이기적 이윤추구에 의해 사용되는 과학기술은 사회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인간의 도덕적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 (나)는 과학기술은 공공의 보편적 이익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한다.
- (다)는 기업들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로봇으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으며, 국가들은 로봇 기술을 사용하여 살상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 문항에서는 (가)에서 제시하는 인류 위기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 방향으로 (가)의 도덕적 힘과 (나)의 시민 참여에 대해 논하도록 요구한다.

평가기준

[기본사항]

가) 8등급으로 평가 :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나)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평가

다)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평가

라)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평가

마)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평가
-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내용]

◎ 채점 방향

- (1) (가), (나), (다)의 중심 내용을 잘 파악했는가
- (2) (가)에서 제시한 대로 이윤추구 행위가 규제되지 않을 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위기를 제대로 파악 했는가
- (3) (다)에 나타난 현대사회의 문제점으로 일자리 위기와 전쟁의 위협이 (가)를 바탕으로 서술되었는가
- (4) (가)의 도덕적 힘과 (나)의 시민참여의 형태가 함께 해결 방향으로 제시되었는가

◎ **채점 포인트**

- (1) (가), (나), (다)의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 (2) (가) 지문에 나타난 두 가지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경우 : 1~2 등급 감점
- (3) 이기적 이윤추구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과 기술의 문제를 곧바로 인류의 위기의 문제로 연결한 경우 : 1~2 등급 감점
- (4) 해결책을 제시할 때 (가)의 도덕적 힘과 (나)의 시민참여가 함께 언급이 되지 않는 경우 : 1~2 등급 감점
- (5) 해결책을 제시할 때 (가)의 도덕적 힘과 (나)의 시민참여 문제가 연결되지는 않아도 됨
- (6) 도덕적 힘과 시민 참여 문제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킨 경우 : 1등급 가점
- (7) (가)의 내용을 먼저 요약하지 않아도 (다)에 나타난 문제를 서술하면서 (가)와 (나)를 활용하였고 이를 해결책으로 연결해도 됨

[형식]

-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 (2) 분량
 - ① 600자 초과 : 1~2등급 감점
 - ②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③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 ④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 ⑤ 350자 미만 : F

나. [문항 2] 예시답안

(가)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당면할 수 있는 위기에 대해 설명한다. 이기적 동기에 의한 무한 이윤추구 활동이 규제되지 않으면 과학기술은 경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으며, 이 논리가 국제관계를 지배한다면 인류의 생존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를 (가)의 논지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들은 인간이 하던 일을 생산성이 높은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라는 목표를 위해 기업이 로봇을 도입하는 현상이 확대되면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둘째, 로봇은 인간의 노동력 대체를 넘어서서 국가 간 전쟁에 이용될 수 있는데, 이미 많은 국가들은 예전의 무기 수준을 뛰어넘는 최첨단 살상무기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가)와 (나)의 논지를 이용하여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면, 인류의 위기는 자유방임 경제체제가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 힘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 또한 과학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도덕적 힘이 발휘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590자)

※ 실제로는 한 문단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문항 3] (가)에 나타난 댓글과 관련된 사회적 현상들을 가려내고, (나)와 (다)를 활용하여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600자 / 40점)

(가) 초기 온라인 뉴스 댓글은 뉴스 소비자인 시민과 기자·언론사와의 소통 공간이었다.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인 경우, 온라인 뉴스의 댓글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간혹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공유되면서 새로운 인터넷 공론장의 가능성도 발견되었다. 이에 학자들도 댓글의 중요성을 주목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언론사가 반응하는 ‘댓글 저널리즘’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었다.

그러나 온라인 뉴스 댓글은 많은 사람의 소통 공간이라는 평가에도 일부 악의적으로 허위·비방 정보를 생산하기도 하고 심지어 불법 정보나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기도 한다. 악플은 사회적 약자 또는 대중에게 노출되기 쉬운 정치인·연예인·스포츠 스타 등에 집중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악플에 대응하기 위해 포털 뉴스 운영사들은 모니터링, 인공지능 필터링, 신고제 등을 강화했으나, 악플은 줄지 않았다. 결국 포털 뉴스를 운영하는 포털사는 뉴스 댓글 공간을 폐쇄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포털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많은 서비스를 폐쇄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 하버마스는 담론윤리를 통해 상호 논증적 토론을 거쳐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궁극적 합의는 서로 이해하며,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믿고 화합하는 가운데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합의를 기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합의가 참다운 합의는 아닐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버마스는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건으로 ‘이상적 담화상황’의 규칙을 제시하였다. 그 중 한 규칙은 언어와 행위 능력을 가진 모든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담론적 권리를 방해받아서 안 된다는 점이다.

하버마스는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합리적 담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인 공론장에서 찾았다. 공론장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작동하는 의사소통의 망으로, 언론뿐만 아니라 문학, 정치, 학술 등 다양한 영역에도 공론장이 존재한다.

(다) 의사소통이란 말과 글로써 다른 사람들과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행위이다. 그래서 화자와 필자는 자신의 말과 글에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이는 말과 글에 진실성이 있어야 하고, 말과 글이 끼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가. [문항 3] 출제의도, 문항해설 및 평가기준

출제의도

- 가) 제시된 글을 사회현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추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나) 추출한 사회현상의 의미를 제시문의 이론이나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다) 적절한 개념과 논리를 바탕으로 조리 있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표현력을 평가한다.

문항해설

- (가)는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쌍방향 소통의 공간이었던 온라인 뉴스 댓글이 왜곡된 정보 확산과 악플로 변질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포털사는 그 해결책으로 댓글 공간을 폐쇄하고 있다고 말한다.
- (나)는 모든 개인들이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담론적 권리를 방해받지 않을 때 합리적 담론의 공론장이 형성되며, 이러한 공론장이 사회통합의 전제임을 말한다.
- (다)는 올바른 의사소통에 있어 말과 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문항에서는 (가)에 나타난 온라인 뉴스 댓글과 관련된 세 가지 사회적 현상을 가려내고, 그 의미를 새로운 공론장 형성과 폐쇄, 그리고 말과 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적용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평가기준

[기본사항]

- 가) 8등급으로 평가: A+, A0, B+, B0, C+, C0, D, F ※ F는 0점
- 나) 내용 80%, 형식 20%로 구별해서 평가
- 다) 내용이 F이면 형식도 F로 평가
- 라) 100자 미만인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평가
- 마) 제목이나 이름 등이 표기된 경우의 처리
 - ①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과 별도로 표기된 경우, 내용과 형식 모두 F로 평가
 - ② 수험생의 신원을 유추하게 하는 이름 등의 정보가 답안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된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 ③ 제목을 단 경우, 형식 2등급 감점

[내용]

◎ 채점 방향

- (1) (가)에서 온라인 뉴스 댓글과 관련된 세 가지 사회현상을 가려내는가
 - ① 온라인 뉴스 댓글이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상호 간의 소통 공간이 됨
 - ② 악플의 등장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양산됨
 - ③ 포털사가 뉴스 댓글을 폐쇄하고 있음
- (2) (나)에 따라 ①이 합리적 담론으로서의 공론장 형성이라는 의미를 설명하는가
- (3) (나)에 따라 ②가 댓글 참여자들의 담론적 권리 훼손으로 보편적 합의에 이를 수 없게 한다는 의미를 설명하는가
- (4) (다)에 따라 ③가 글에 대한 악플러들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의미를 설명하는가
- (5) (나)에 따라 ③이 포털사의 공론장 폐쇄가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미를 설명하는가

◎ **채점 포인트**

- (1) (가)에 나타난 3개의 사회 현상 중 파악하지 못한 수만큼 1~2등급 감점
- (2) (가)의 온라인 뉴스 댓글을 (나)의 합리적 담론으로서의 공론장 개념과 연결하지 못한 경우 : 1~2등급 감점
- (3) (가)의 악플을 (나)의 담론에 대한 보편적 합의, (다)의 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 : 1~2등급 감점
- (4) (가)의 댓글 폐쇄를 (나)의 사회통합의 의미와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 : 1~2등급 감점

[형식]

- (1) 문장 구성, 표현, 표기, 문단 나누기 등이 부적절한 경우, 정도에 따라 1~3등급 감점
 - ① 문장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표현이 부정확한 경우
 - ② 맞춤법, 원고지 사용법 등의 잘못이 있는 경우

- (2) 분량
 - ① 600자 초과 : 1~2등급 감점
 - ② 450자~500자 미만 : 1등급 감점
 - ③ 400자~450자 미만 : 2등급 감점
 - ④ 350자~400자 미만 : 3등급 감점
 - ⑤ 350자 미만 : F

나. [문항 3] 예시답안

(가)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온라인 뉴스 댓글이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쌍방향 소통 공간이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댓글에 악의적 비방, 가짜뉴스 등 악플이 등장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는 점이다. 셋째, 악플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인공지능 필터링, 신고제 등을 강화해도 악플이 줄지 않아 결국 뉴스 댓글 공간을 폐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 가지 현상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댓글이 쌍방향 소통 공간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담론이 이루어지는 공론장의 형성을 의미한다. 둘째, 악플의 등장은 이상적 담화상황의 조건인 참여자들의 담론적 권리를 훼손한다는 의미를 지니며, 이 때문에 보편적 합의를 불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악플러들이 자신의 말과 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 셋째, 포털사가 댓글 공간을 폐쇄하는 것은 단지 자신들의 일부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담론 공간인 공론장의 폐쇄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586자)

※ 실제로는 한 문단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